

지리산에서 지리산을 보다

서정인의 소설 『달궁』과 『철쭉제』의 작품 공간

지리산 제석봉

채 희 윤 · 광주여대 교수





상을 지리학에 차용하면 우리의 공간은 어떤 형태를 지니게 될까? 좀더 좁혀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순전히 추억과 상상에 의지하여 지리산을 그린다면 그것을 그린 만큼 많은 형상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상으로만 지리산은 생김새만큼 이름도 많고, 모양도 다기하다. 또 그만큼의 역사적 질량과 민족적 정서가 깃들여 있는 곳이다. 그로부터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가히 언술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탓이다.

우리는 이따금 생은 미궁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산은 거대한 산 속에 흩어져 있는 산길들과 같은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전혀 달라진다. 지리산에서의 밤을 어느 곳에서 묵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되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왕봉까지의 거리를 많게는 이틀, 적게는 하루 정도 걸려 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삶의 목적지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 걷는 여정 역시 마찬가지이리라.

지리산, 문학의 단골손님

지리산을 종주하다보면 만나는 재의 이름은 화개재이다. 화개는 저만큼 반나절 길 밑에 있는데 웬 산에 화개재란 말인가? 전라도 남원 근방의 장꾼들이 화개장을 가기 위해, 경상도 장꾼들이 남원으로 가기 위해 넘나들었다는 이 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리산은 삼도에 걸쳐 있어 오르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풍광을 갖는다. 이를테면 중산리 쪽에서 오르면서 만나는 풍광과 쌍계사를 거쳐 불일폭포에서 오르는 길에 만나는 풍광은 가히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오르는 길은 어떻고,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오르는 여정은 어떤가? 그들은 각기 다른 매혹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산의 지세와 지형을 알면 슬기로워진다는 뜻에선지, 기묘한 이형의 산지라는 뜻에선지 이렇듯이 다양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 마치 금강산이

우리는 이따금 생은 미궁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산은 거대한 산 속에 흩어져 있는 산길들과 같은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전혀 달라진다. 지리산에서의 밤을 어느 곳에서 묵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되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왕봉까지의 거리를 많게는 이틀, 적게는 하루 정도 걸려 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삶의 목적지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 걷는 여정 역시 마찬가지이리라.

사진 : 사진작가 박영호

그렇고, 무등산이 여러 이름을 갖듯이 말이다.

더구나 지리산은 하루에도 날씨 변화가 심하여 범접하기 결코 만만치 않은 성산이다. 워낙 산이 높으면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옛말에 ‘산이 높으면 비 건힐 날이 없고, 계곡이 깊으면 물길 끊어 질 날이 없다’고 했다. 청청해 보이는 날에도 갑작스런 호우가 내리는 가하면, 비만 오면 계곡은 곧 물로 채워져 곳곳에 소(沼)가 생긴다. 그러므로 늘 얼굴을 바꾸고, 섬없이 모양이 변하는, 어찌 보면 요염한 여자들의 마음과 옷차림과 같다. 그래서 지리산 100여 리 주능선에는 구름이 건힐 날이 없고 능선과 계곡에는 비와 눈과 안개가 그칠 날이 없다. 이렇듯 세계의 만상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멋과 낭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 우리들에게 스스로 몸을 여미게 하는 곳이다. 멀리서 지리산을 보면 대자연의 웅대함과 상대적으로 ‘왜소한 인간’의 존재가 느껴진다. 또한 기묘한 봉우리와 아기자기한 멋은 없지만 굽은 능선의 힘찬 모습이 남성적이며 편안함을 한껏 뿜어낸다. 이 산은 찾고 또 찾을수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승경에 오히려 질려버릴 정도다.

문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라서 지리산은 한국 대하소설의 극단을 보여주었던 『토지』와 『태백산맥』의 주무대가 되었고, 때로는 『달궁』이니 『철쭉제』에 나오는 작은 지명이 곧 소설의 전체적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불일폭포』와 산 이름 그대로를 차용한 『지리산』은 어떠한가? 그들 작품 모두는 지리산이 갖는 현상과 상징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 더구나 소설의 길은 인생의 여정과 같았다는 의미에서인가, 보다 자주 쓰이고 있다.

천왕봉 일출



쌍계사~불일폭포-점수(漸修)하는 인생의 여정

불일폭포에서 시작하자. 멀리 사는 사람에게 불일폭포는 참 모호하고 애매한 곳이다. 거기를 가기 위해선 쌍계사를 먼저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쌍계사는 사철 중 봄철에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불일폭포를 보려면 여름에 가야 한다. 적어도 늦봄부터 초가을까지가 불일폭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다. 더구나 좀 더 발품을 판다면 청학동까지도 갈 수 있다. 쌍계사의 그 유명한 벚꽃을 보려면 우리는 봄철에 가야 하고, 그때 쌍계사를 거쳐 올라간 불일폭포에서 물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얼음이 덜 녹은 얼음기둥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직하하여 비산하는 물의 그 현란한 울동과 귀를 씻어 내리는 엄중한 자연의 경고와 같은 낙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불일폭포에 못 미쳐 있는 정겨운 찻집에서의 차 한 잔이 주는 깊고 융숭한 맛 역시 봄철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지리산은 하루에도 날씨 변화가 심하여 범접하기 결코 만만치 않은 성산이다. 청청해 보이는 날에도 갑작스런 호우가 내리는 가하면, 비만 오면 계곡은 곧 물로 채워져 곳곳에 소(沼)가 생긴다. 그러므로 늘 얼굴을 바꾸고, 쉽없이 모양이 변하는, 어찌 보면 요염한 여자들의 마음과 옷차림과 같다. 그래서 지리산 100여 리 주능선에는 구름이 걷힐 날이 없고 능선과 계곡에는 비와 눈과 안개가 그칠 날이 없다. 이렇듯 세계의 만상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멋과 낭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 우리들에게 스스로 몸을 여미게 하는 곳이다.

천왕봉 원경





쌍계사 벚꽃



노고단

불일폭포는 그래서 여름이 제철이다. 더구나 정말 쌍계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른 봄, 썩들이 제 몸을 막 지상으로 밀어 올렸을 때, 적어도 5리 밖에서부터 걸어가야 한다.

차를 타고 절 입구까지 가는 사람은 단언하건대 쌍계사를 보지 못한다. 그는 절만을 보고 올 뿐이다. 고유명사 쌍계사를 보려는가? 그렇다면 차를 버리고 걸어라.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땅바닥에 스며드는 봄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 절이 그렇게 절묘하게 지리산 자락을 꿰차고 앉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점수(漸修)하는 인생의 여정을 그대에게 오롯이 안겨줄 것이다. 쌍계사 주막 거리에서 하동 재첩국이나 은어회 한 접시에 탁주 한 사발 척 허니 걸치고 김삿갓 식으로 내원골 뒤로 위회를 한다면 불일폭포는 더욱 환상일 것이다. 폭포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내려서는 길에 들르는 작은 너와집같이 생긴 작은 찻집의 정겨움, 그곳에서 단가나 산조 등 우리 소리 한 자락 듣는다면 세외지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화엄사~노고단 - 마음 속 청정한 연등 커고, 세속의 참뜻 헤아리다

마찬가지이다. 노고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화엄사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삼재에 차를 슬쩍 놓고 노고단까지 종종걸음으로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노고(老姑)가 도란도란 말해주는 생의 비의나 사랑의 속삭임을 듣지 못할 것이다. 물론이다. 성삼재에서 맛보는 탁주 한 잔에 지리산 토종 도토리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노고단의 운해가 왜 유명한 것인가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자연과 인간들의 교호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의 그 진흙길을 걸어 오르지 않고서는 왜 슬기로운 산인지, 왜 우리가 어떤 일에 긴 인내가 필요한 것이며, 왜 그 봉우리를 노고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체험할 수는 없다. 붉은 진흙, 검은 진흙, 자갈로 이루어진 너털길을 모조리 거치고 노고단에 오르는 순간에야 비로소 내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청정한 연등 하나를 볼 수 있고, 구름 바다가 절연해 내는 세속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어차피 내려가야 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때의 길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회적회적 내려가 온천에 발 담그려하지 말고,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운조루(雲鳥樓)'이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운조루의 사랑채에 따른 높은 누의 오른 마루에 앉아서 너른 들녘을 바라보자. 산에서 바라보는 추상처럼 흐릿한 들녘이 아닌 명료하고 너른 보리밭들과 먼 안산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왜 풍수에 대하여 그토록 정성을 쏟았는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금환락지(金環落地)의 땅에 살기 위해 그들이 넉넉하게 베풀었던 세상에서 제일 큰 쌀뒤주의 인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서 걸어 나와 마을 한 바퀴 매우 천천히 돌아보자.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떠한 혜택으로 자신들을 희생하는가를 알고, 그 집 토담이나 돌담을 여울져 흐르는 물들이 키워내는 창포와 붓꽃들의 푸릇함을 즐기는 것도 행복일 것이다.

사성암, 지리산과 조응해야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

내게 지리산은 수수께끼이다. 세 번을 올랐지만 겨우 한 번 자신의 얼굴을 내밀어 준 천왕봉의 일

고리봉에서 바라본 비래봉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서 대면한 지리산 역시 내게 그렇다. 궁핍과 죄의식을 초월한 두 남녀의 지순한 사랑은 아마 지리산의 품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 너른 골짜기와 소와 재들이 만들어내는 은폐된 공간이 있어서 비로소 그들의 사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몹시 짧아서, 그들의 사랑 역시 그렇게 짧았겠지만.

출이며, 멋모르고 바람맞이 산기슭에 텐트를 쳤다가 새벽 산바람이 텐트를 휘몰아 가버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젊은 시절의 임결령 기슭들 역시 그렇지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서 대면한 지리산 역시 내게 그렇다. 지리산은 토지의 시작이며 그리고 가장 맥박 있는 플롯이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나뭇잎은 쌓이고 쌓였던 것일까. 몸무게가 붕 뜨는 것 같은 부엽토 더미, 인적에 다져지질 못한 부엽토에 폭석폭석 발목이 묻히는데 모래밭과 달리 발바닥에 저항은 없다. 계곡에서, 바위마다 두겹게 늘어붙은 이끼에서, 썩은 나무 밑둥, 푸르름이 서로 반영되어 소나기 퍼붓는 곳에 번개치는 순간의 밝음과도 같이 터리는 움직임이고 터리는 정지한 나뭇잎, 발밑에서 스치는 산죽에서, 사방에서 습한 기운이 기류를 타고 묻어오며 움직인다. 다시 계곡이 멀어지면서 물소리도 멀어진다.

— 『토지』 1 부에서

최치수가 강포수를 앞세워 아내를 데리고 도망간 환이를 죽이기 위해 해매는 장면에서 만났던 지리산은 질감으로만이 아닌 후각까지도 살려내는 문장으로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지리산을 다니면서, 아마 이곳이 선생님이 그렸던 바로 그 장소 아닐까 생각했다. 연곡사, 바로 여기가 우관 스님과



환이가 대화를 주고받던 장소가 아닐까 하면서 말이다. 더욱이 별당아씨가 죽어서 묻히게 되는 장소와 그들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장소들 역시 여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세석의 너른 땅에 피어오르는 철쭉을 보면서도 그렇다. 궁핍과 죄의식을 초월한 두 남녀의 지순한 사랑은 아마 지리산의 품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 너른 골짜기와 소와 재들이 만들어내는 은폐된 공간이 있어서 비로소 그들의 사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몹시 짧아서, 그들의 사랑 역시 그렇게 짧았겠지만.

이튿날 저녁때, 환이는 제가 입은 저고리를 벗어 시체를 싸고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은 북쪽 끄트머리 어느 깊은 골짜기에 여자를 묻었다. 얼음조각같이 싸늘한 달이 능선 위에 댕그마니 걸려 있었다. 꺼무꺼무한 능선과 맞붙은 하늘을, 환이는 그 푸른 은빛 나는 하늘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진달래 꽃이파리가 되고 꽃송이가 되고 계속하여 울리면서 진달래의 구름이 되고 진달래의 안개가 되고 숲이 되고 무덤이 되고, 붉은 빗줄기, 붉은 눈송이, 붉은 구름바다, 그 속을 자신이 걷고 있다는 환각 속에 환이는 쓰러졌다.

- 『토지』 1 부 중에서

혹시 내가 걷는 이 음습한 땅 아래에 그녀가 묻혀 있을 줄 모른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묻으면서 자신의 인생까지 한꺼번에 장사를 지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사랑이란 매우 드물어서 우리 인생에 고작 한두 번 그렇게 스쳐지나가는 기쁨 테니까. 이제는 다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그녀와 함께 이미 저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간주하여야 한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에…….

나는 ‘사성암’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있는 암자에는, 그러나 놀라운 보물 같은 장소이다. 그곳에서 만나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애약사여래입상이다. 어찌 그렇게 대패로 마름질 해놓은 듯한 수직의 바위판에 그렇게 정교하게, 여릿하게 새길 수 있었을까? 종교의 힘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원효는 정말 선정에 들어 허공에 서서 손톱으로만 이 약사불을 새기였을까? 합리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는 속악한 우리의 호기심을 약사불의 온화한 미소가 부질없는 것이라며 손으로 가로 막는다. 그리고 홀연, 섬진강에 어리는 지리산의 긴 그림자가 눈앞에 은어처럼 퍼덕인다.

달궁계곡



사랑은 선(禪)의 화두처럼 가파르고 불(佛)처럼 아득하고 승(僧)처럼 단아하며, 도(道)처럼 투명해서 가 닿을 수 없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은 기교라고 번역되는, 썩 알맞지 않지만, 또 마땅한 언어가 없는 것처럼 예술이다. 아마 눈치를 챘을 것이다. 나는 ‘사성암’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리산의 자락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리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사성암은 지리산과 조응해야만 비로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이다. 아직도 길이 좋지 않고, 어찌 이런 곳에 절을 세웠을까 하고 의아해 하지만, 여기에서 한국 불교의 위대한 조사를 네 명이나 배출해냈다는 것을 알면, 아하 그러기에 하며 우리는 머리를 끄덕여 수궁을 표한다. 올라가기가 까마득하여 겨우 최근에야 알려지기 시작한 이 암자는—결코 절이 아니다—초보 운전자에게는 권해서는 안 될 길이다. 불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하고 기다려보자.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있는 암자에는, 그러나 놀라운 보물 같은 장소이다. 그곳에서 만나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애약사여래입상이다. 어찌 그렇게 대패로 마름질 해놓은 듯한 수직의 바위판에 그렇게 정교하게, 여릿하게 새길 수 있었을까? 종교의 힘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지금처럼 거푸집 기술도 없었을 터인데 원효는 정말 선정에 들어 허공에 서서 손톱으로만 이 약사불을 새기었을까? 합리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는 속악한 우리의 호기심을 약사불의 온화한 미소가 부질없는 것이라며 손으로 가로 막는다. 그리고 홀연, 섬진강에 어리는 지리산의 긴 그림자가 눈앞에 은어처럼 퍼덕인다. 밝은 하늘 아래 남도의 한 귀퉁이가 보이는 약사전과 그 좁은 곳에 앉아 좌선을 했다는 의상의 좌선대. 그랬을 것이다. 좁은 세상을 바라보며, 위대한 네 분의 스님들은 더 큰 세계를 발현해내었을 것이다. 공덕이 꽃처럼 흩뿌려지는 세계를 바라보며…….

피아골 그리고 단풍—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무하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수난과 역사적 아픔의 공간에 대한 회상을 이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한 때는 금기된 단어였던 지리산 빨치산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의 돌출한 두 인물 하대치와 외서택으로 대표되는 우리 민중들의 존재와 같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생의 공간인 피아골을 위시한 지리산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용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늘 가슴에 품고도, 그 생채기를 무던히도 홀로 쓰다듬으며 우리를 보듬어 안는 지리산이야말로 수난의 역사를 통해 안식 받을 수 있는 그들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들의…….

“피아골 단풍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단풍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 시대 유학자 조식 선생이 한 말이다. 핏빛 보다 붉다고 하는 지리 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직전마을 단풍은 피아골 입구 직전부락 일대의 단풍 절경을 일컫는다. 피아골은 ‘삼홍소’라 대변될 정도로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다. 빨치산의 죽은 피로 피아골이 백일 동안이나 핏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나, 그 핏물이 땅에 스며들어 원혼으로 피어나기에 피아골의 단풍은 뱀사골보다 더 붉고 아름답다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위무시켜 온지도 모른다. 지금도 남아 있는 산장 터가 유일한 평지여서 지리산이 빨치산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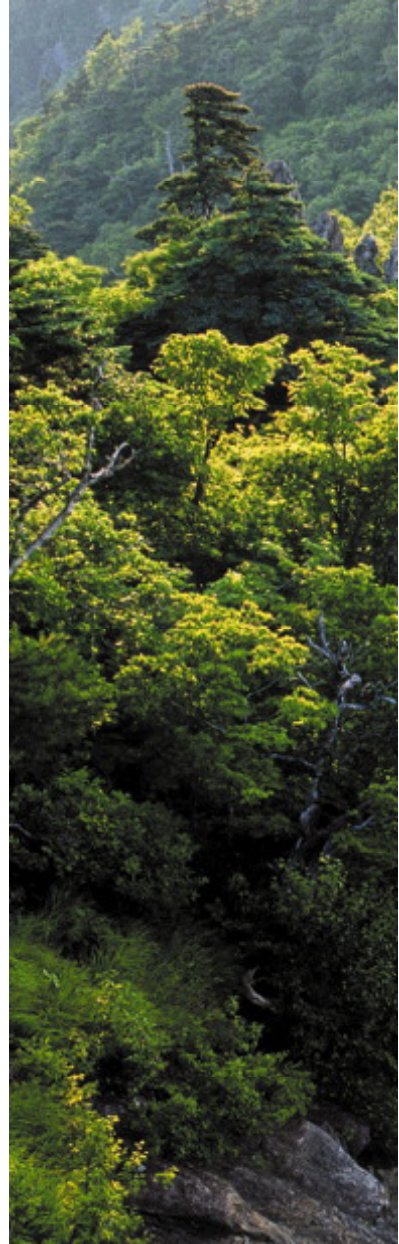


지였던 시절 지금의 산장 옆에 있는 음수대에서 남부군의 총수 이현상이 연설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당시의 원혼들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면서 방황하는 탓에 지금도 의문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그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비라도 세워 달래야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서 변한 조국의 현실과 함께 당시의 암울했던 아픔 역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생의 의식을 되새겨 주었다. 이제 화합의 산, 지리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리라 여겨 본다.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할 피아골을 한번쯤 찾아봄직하다. 그것도 가을에, 단풍이 시작되기 전에 가는 것이 좋다는 것과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체험 마을에서 1박 2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해둔다. 하나 더, 피아골 오르기 직전에 있는 우리차 파는 곳에 들러 지리산에서 나는 백가지 풀로 만들었다는 백약차나 약초를 한 잔 걸치고 오른다면 힘이 부쩍 날 것이다.

달궁과 뱀사골-마한의 애환과 달의 궁전에 얹힌 옛 일을 유추하다

혹시 피서를 위해 갈 만한 장소를 찾는다면 달궁과 뱀사골이 그 우선순위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그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가 목적이라면 둘 중 어느 곳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가서 피서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아침 8시 이전에는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뱀사골의 물은 한국 최고의 물이라는 일컬음에 지극히 합당하므로 이만한 수



달의 궁전(月宮)이 있었다. 까마득한 옛날에 지리산에 달궁이 있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큰 궁전이 있었다. 그곳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달궁은 유백한 곳이었고, 청정한 곳이었고, 상가지향이였다. 그런데 달궁은 사라지고, 이제 도로가 달궁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달궁은 사라졌다. 서정인 선생은 그러한, 존재했지만 없는 것, 말로만 존재하며 유적으로만 전해지는 세상에서 차용해 그의 소설 『달궁』의 서사구조를 통해 소설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제석봉

사진 : 사진작가 박환운

고야 어찌면 당연하다. 여름에도 시원한 지리산의 아침 8시가 춥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차를 빼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릴 것이며, 오전에는 차를 댈 곳이 없어 그렇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성공하듯이 지리산의 피서 역시 그렇다.

3분을 앉아 있을 수 없도록 차가운 뱀사골의 물은 시릴 정도로 춥다. 짹짹한 햇볕이 수직으로 내려쬰어 모든 땀샘들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풍덩 하고 뱀사골의 맑은 물 속에 잠기면, 모퉁이 송연하다는 표현 그대로 온몸이 얼음 세례를 맞은 양 시원해진다. 거기다가 근처에 산재한 식당에서 토종닭 백숙이든, 삼계탕을 시켜먹는다면 가히 한여름 피서로는 으뜸일 것이다. 그렇다고 자리를 못 잡았다고 기죽을 것은 없다. 차를 계속 몰아 지리산을 따라가라. 정령치 정상에 올라,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패러글라이더를 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이라도 더위는 지리산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달의 궁전(月宮)이 있었다. 까마득한 옛날에 지리산에 달궁이 있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큰 궁전이 있었다. 그곳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달궁은 유별한 곳이었고, 청정한 곳이었고, 상가지향이었다. 그런데 달궁은 사라지고, 이제 도로가 달궁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달궁은 사라졌다. 서정인 선생은 그러한, 존재했지만 없는 것, 말로만 존재하며 유적으로만 전해지는 세상에서 차용해 그의 소설 『달궁』의 서사구조를 통해 소설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어찌하든 달궁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곳이다. 오늘날도, 안개 자욱한 달궁의 길을 밤에 달리거나, 달빛만 청청히 명랑한 계곡으로 들어가자면 옛날 전설의 여우나 선녀들이 손으로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을 것이다. 산그림자와 달빛이 만들어내는 그 은은한 채색화는 그렇게 보아야만 마땅하다.

달궁 계곡의 비경은 달궁마을에서 심원마을까지 이어지면서 특유의 계곡미를 한껏 과시한다. 2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종단도로가 이어지지만 계곡에 들어서면 별유천지를 연상케 할 정도이니 언제든지 많은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비함은 날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쟁기소, 와폭, 구암소, 청룡소, 안심소를 거치면서 달궁계곡의 풍성함과 비경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얼마 가지 않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아릿하다. 6km에 이르는 원시비경과 더불어 달궁을 기점으로 한 등산로 역시 산행의 묘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마한의 애환과 달의 궁전에 얹힌 옛일을 유추하고 더듬으며 시작하는 산행이야말로 지리산의 진수가 아닐 수 없다.

자, 이제 우리 지리산으로 떠나보자. 배낭이 있으면 산으로 오르고, 시간이 없다면 지리산의 일주 도로를 따라 풍성한 남도의 음식—섬진강 참계장과 은어 재첩국, 지리산의 산나물, 백야차 등—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떠나보자, 거기에 한 권의 문학작품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